

미리 보는 2016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22 May, 2016 | 박상현 기자

page 1 of 2



'용적률 게임'에 선보일 이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전선에서 알리다' 주제로 28일 개막

한국관 주제는 '용적률 게임'...최재은 본전시 참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2년마다 열리는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개막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은 국제미술전이 열리지 않는 짝수 해에 개최되며, 올해는 오는 28일 시작돼 11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건축전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트츠키상'을 수상한 칠레 출신의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전시 주제는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이다.

아라베나 총감독은 지난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계의 도전과 그 결과를 비엔날레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총감독이 직접 작가를 선정해 구성하는 본전시,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관 전시, 본전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부대행사인 병행전시로 나뉜다.

조선소와 무기고 자리였던 아르세날레에서 열리는 본전시에는 37개국 88명이 참가한다. 그중 50명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처음 초대됐고, 33명은 40세 미만의 젊은 건축가다.

한국에서는 설치미술가 최재은(63)이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한 프로젝트 '꿈의 정원'으로 본전시에 나선다. 건축전 본전시에 우리나라 작가가 초청된 것은 4년 만이다.

최재은이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와 협업해 선보이는 '꿈의 정원'은 지뢰로 가득찬 비무장지대에 3~6m 높이의 공중 정원과 보행로를 만들어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작품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제거에만 489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갈등과 분단을 생명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국가관 전시는 30개 상설 국가관, 아르세날레와 베네치아 시내에 마련되는 비상설 국가관으로 구성된다.

올해 비엔날레에는 필리핀,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세이셸, 예멘 등 5개국이 새롭게 참가한다.

지난 2014년 건축전에서 한반도 분단 상황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건축 100년을 조망해 최고 영예의 황금사자상을 받은 한국관은 이번에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을 주제로 꾸며진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을 대변하는 단어다.

특히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고, 그 결과 통일성이 없는 기이하고 즉흥적인 풍경이 탄생했다.

전시는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인 김성홍 예술감독이 총괄하고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운 공동 큐레이터가 기획한다.

이외에도 미국관은 '건축학적 상상력', 스위스관은 '우연적 공간', 영국관은 '가정 경제'를 주제로 한 전시를 마련한다.

한편 병행전시에는 박진희 작가가 '시간 공간 존재'(Time Space Existence)라는 작품으로 참가한다.